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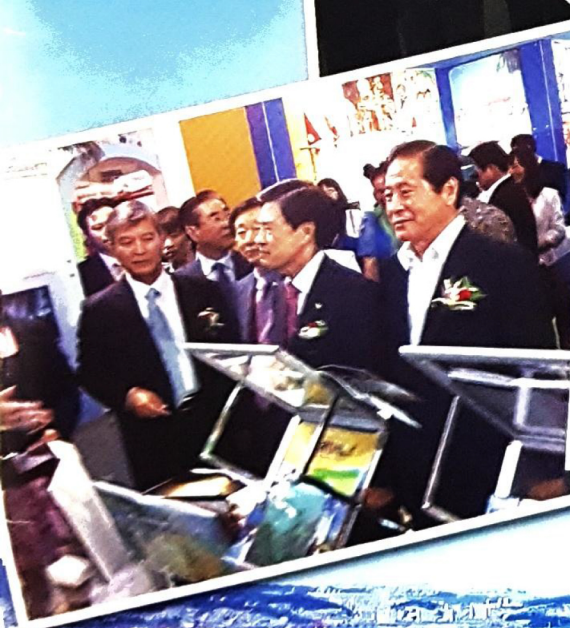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9
2013. September

제16회 2013 부산국제관광전

43개국, 241개 유관기관 참여, 허남식 부산시장 등
세계 각국대사, 주한관광청등이 참석,
부산의 관광활성화에 큰 획을 그었다.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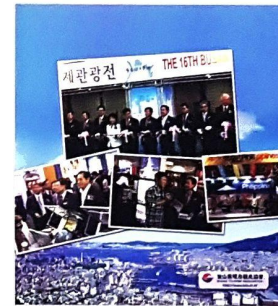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9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52-4550 광주 052)25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95 전북 063)221-4252 전남 061)255-095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92



Contents 2013. September Vol.19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중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3년 9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rnoon.kr>



표지 _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 04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 08 부산시 올해 외국인관광객 300백만명 유치 힘들 듯
- 09 내·외국인 대상 2013 부산관광안족도 설문조사
- 10 의료관광축제 최대규모 성황리 종료
- 11 동부산관광단지 첫 외국자본 유치성공
- 12 SPECIAL FOCUS / 중국 국가 공원인 貴州省(꾸이저우)를 가다
- 19 동·서 통합형 남도해양관광열차운행
- 20 2013 BIFF, 70개국 301편 음악의 향연 펼친다
- 22 제9회 부산불꽃축제
- 24 중구청 크리스마스축제, 해운대구청 모래축제등 축제상표등록추진
- 25 가을의 길목에서
- 26 10월은 부산축제의 달
- 27 대동대학교 서비스경영계열
- 28 부산 영도다리 일원 새로운 관광자원 역할
- 29 이기대 '자연마당'으로 거듭난다
- 30 산복도로 모노레일 내년 2월 첫 건설
- 31 낙동강 하구언, 태종대 등 12곳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 32 해운대지역 호텔 건축
- 33 부산 해수욕장 울머름 피서객 4041만9000명 다녀갔다
- 34 단풍의 고향 같은 곳 설악산!
- 36 도심속 체험, 실내 부산동물원 키주스토리 탄생
- 38 부산트릭아미미술관 개관
- 40 TOURISM COLUM / 휴머투어리즘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16회 2013 관광인의 큰잔치 부산국제관광전 성황리에 막내려

해운대 벅스코, 43개국 241개 유관기관 부스 설치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BITF2013)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 BEXCO 3홀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시의회의장, 임혜경 교육감, 이태섭 부산시관광협회 회장, 조성제 상공회의소 회장, 코트라 신중목 회장 등 많은 국·내외 인사, 그리고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벅스코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에는 43개국 241개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이번 부산관광전 행사기간에는 세계음식페스티벌, 세계전통 민속공연, 의료관광 테마전,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국제관광전은 1995년 개최 이래 영호남지역 최대의 관광축제로서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올해는 아프리카 9개국의 참가와 파

키스탄, 벨라루스,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수단, 가봉, 세네갈, 에티오피아, 이란, 피지 등 12개 국가가 새롭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 더 많은 관광정보와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올해 최대 규모로 참가한 중국국가 여유국, 인도양의 보석 세이셸, 레위니옹, 통가 그리고 미국의 최고 유망지인 괌 및 도미니카공화국 등 세계적인 관광 국가들이 참가했고, 이외 40여 국가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이번 부산국제관광전은 6일 오전 11시 세계 각국의 대사 및 주한 관광청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빠짐없이 소개하는 '국내홍보관' △

해외 42개국의 색다른 문화와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해외홍보관' △여행상담은 물론,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여행상품 판매관' △ 각종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광지식정보교류관' △다양하고 특별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부산지역 관광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대형 아웃바운드여행사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및 기타 관광업체 등과의 관광교류의 장인 '해와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를 통해 부산관광자원 홍보는 물론, 부산의 주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또 예년보다 많은 국내 여행업체 참여



허남식 부산시장, 필리핀 관광청 부스 앞에서



이태섭 관광협회 회장 개그맨 강성범 인터뷰



구마모토현 기쿠치시 부스



홍콩 부스



태국 민속 공연단



필리핀 민속 공연단

로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 예약, 구매를 할 수 있어 알뜰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아울러 '구석 구석 부산'을 주제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부산관광의 매력을 소개할 '제6회 부산관광 UCC 전국공모전' 입상작 상영, '제15회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입상작 전시 및 시상식이 거행했으며 미국·이탈리아·태국·멕시코 등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먹거리들이 전시 판매되는 '세계음식페스티벌', 중국·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 등의 '세계전통민속공연' 등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번 부산국제관광전은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세계전통 민속공연·전통문화체험관, 의료관광테마체험관·고교생 관광서비스경쟁대회 등 관광

마카오 뉴스레터 등을 무료로 배포했으며, 부산 내 마카오를 대표한 상징적인 건축물인 성바울 성당 유적을 배경으로 소중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했다. 이 외 마카오정부관광청 페이스북(www.facebook.com/mgtokorea)의 LIKE 이벤트를 진행, 마카오 본청에서 제작한 다양한 경품을 무료 증정했으며, 마카오 축제 및 대표적인 관광영소를 맞추는 '주사위' 퀴즈이벤트를 진행, 퀴즈 정답자에게는 마카오 본청에서 제작한 푸짐한 경품을 현장에서 직접 증정했다.

예루살렘 성곽 이미지를 본 딴 이스라엘관광청 부스에서는 고대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던 서쪽 외벽인 통곡의 벽에 오늘날 이스라엘인들과 관광객들이 기도문을 적어 돌 틈에 끼우는 풍습을 모티브로 해 방문객들이 포스트잇에 소원을

서 개최했으며, 이외 초청공연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푸짐한 경품추첨 시간도 있어 관심을 자아냈다.

필리핀관광청은 올해 부산관광전에서 10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무료 안내책자와 지도를 제공했으며, 매일 추첨을 통해 우산, 쇼파백, 네임택 등 다양한 이벤트 경품도 부스를 찾는 관람객에게 지급했다. 또한 필리핀 공연단 Sindaw Philippines Performing Arts Guild를 초청해 하루에 두 번씩 메인 무대와 필리핀관광청 부스에서 각각 공연을 펼쳤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필리핀항공에서 제공하는 부산-마닐라/부산-보라카이(갈리보) 오야복 항공권, 세부퍼시픽항공에서 제공하는 부산-마닐라, 부산-세부 왕복 항공권, 에어부산에서 제공하는 부산-세부왕복 항공권 추천행사도 가졌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웹 캐스팅(Web Casting)을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스케치해 영상으로 업데이트해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했다. 또 '참가국가 대사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정보를 얻고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동안 '2013 부·울·경 방문의 해'를 기념해 쇼핑·숙박·식음료 등을 할인판매하는 '2013 부산 그랜드세일'도 열리고 있다. 또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4~6일),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6~8일) 행사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세계 최고 시청률의 뉴스채널인 미국 CNN에 부산의 대표 관광지들이 소개됐을 만큼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번 행사는 부산관광산업 발전과 인바운드관광 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손해식 편집위원



BITF 2013



부산광역시 부스



경상남도 부스



대동대학교 부스



대구광역시 부스

2013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거행



특선작 : 남송학씨의 '불꽃축제'



타겟에 맞춘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단순한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마련했으며, 아울러 해외 왕복항공권, 호텔숙박권, 여행용품 등 매일같이 펼쳐진 풍성한 경품이벤트는 관광전이 열린 4일 내내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외국관광청 주요행사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인포존에서 직접 제작한 가이드북 4종 및 호텔 브로셔,

적어 미니 이스라엘 통곡의 벽 판넬에 붙이는 통곡의 벽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고 또 관광전이 열리는 4일 동안 이스라엘의 유명 관광지인 예루살렘, 사해, 텔아비브, 갈릴리 네 곳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의 선호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 등이 소개됐다.

타이관광청은 관광교류활성화를 위한 트래블 마트 및 관광설명회를 이번 관광전 기간인 9일(월) 부산롯데호텔 41층에



부산시 올해 외국인관광객 300백만명 유치 힘들 듯

부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서둘러야할 때
중저가 숙박시설, 쇼핑특화 등 인프라 구축 시급

일본인 관광객은 줄고, 중국인 관광객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서 부산 관광이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인 300만명 달성이 힘들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 감소는 호텔과 카지노, 박물관, 전통시장 등 부산지역 관광과 쇼핑 관련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상반기 부산에 크루즈선이 58회 기항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부산 최대의 관광고객이 됐다. 하지만 서울과 제주 등 체류형 관광지역 비해 부산은 경유형 관광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면세점 외에는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크루즈 여객들은 오후 6시 이전에 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 호텔업계나 식당, 일반 쇼핑가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통상적으로 수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조를 나눠 관광버스에 타거나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해 6~8시간 가량 부산관광을 한다. 대부분이 범어사와 해운대 등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롯데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에서 쇼핑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패턴이다.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날에는 단체 관광보다는 자유 여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 관광객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숙박과 식당, 쇼핑 등에서 돈을 쓰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면세점 외에는 돈을 쓸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크루즈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하루 이상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인삼 등을 취급하는 중국인들에게 특화된 쇼핑점과 음식점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부산 관광의 미래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숙박과 쇼핑, 음식점 등 인프라 확보와 전문여행사, 가이드 육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관광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이효영 기자

내·외국인 대상 2013 부산관광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해운대 해수욕장과 남포동·국제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자갈치시장, 서면 등이 부산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이번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운대해수욕장과 남포동·국제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자갈치시장, 서면 등이 부산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장소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내국인 부산 방문객 450명의 향선지를 복수 질문한 결과 해운대해수욕장(81.3%), 남포동·국제시장(66.7%), 광안리해수욕장(51.8%), 광안대교(50%), 자갈치시장(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달맞이그개(27.8%)와 서면 일원(19.1%)도 인기를 내밀었다. 또 외국인 방문객들은 해운대해수욕장(88.0%), 남포동·국제시장(65.3%), 자갈치시장(52.7%), 서면일원(45.3%) 등 순으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들이 즐겨는 응우산공원(39.3%)과 부산야쿠리움(36.0%)도 인기를 끌었다.

내·외국인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는 해운대해수욕장 내국인 37.1%, 외국인 59.1%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억에 남는 장소로 남포동·국제시장 내국인 30.7%, 외국인 7.4%, 광안리해수욕장 내국인 7.8%, 외국인 1.3%, 자갈치시장 내국인 6.0%, 외국인 8.1% 등이 꼽혔지만 해운대해수욕장처럼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 전문가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지역 관광이 주로 자연경관이나 쇼핑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또 해운대구와 중구의 당혹여 지나치게 관광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에 산재한 문화와 역사유적지가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특설리가 높았다.

부산 찾아 돈 쓰는 해외 관광객 중국 ↑, 일본인 ↓

올 상반기 日관광객 18% 감소...반한 감정에 엔저까지 겹친 탓

올해 상반기(1~6월)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크루즈로 입항하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5만3526명으로 지난해(30만18974명) 대비 17.9% 줄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과 반한 감정에 이어 올 상반기 불거졌던 북핵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까지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이던 일본인 관광객은 4월과 5월 들어 각각 -8.8%와 -6.1% 등 한 자릿수 감소세로 돌아서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6월에 다시 27.3%가 빠졌다.

특히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 엔저보다는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에 따른 반한 감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일본 내 우경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크루즈 기항으로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이들이 면세점 쇼핑에 집중하면서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올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은 31만7339명으로 전년(24만3974명)에 비해 30% 급증해 처음으로 일본인 관광객 25만3526명을 누르고 부산 최대 관광객의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올 상반기에만 58회 기항한 크루즈 관광객의 역할이 컸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상반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131만7986명으로 전년(124만4614명)에 비해 5.9%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173만5000명)이 전년(179만2000명) 대비 45.6% 증가했으나 면세점만 찾는 단조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관광업계는 말하고 있다.



올해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 및 국제 의료정보 교환을 위한 다양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컨벤션에서 진행됐던 의료관광세미나 모습. 부산권의료산업협회의 제공

의료관광축제 최대 규모 성황리 종료

벅스코서 87개 업체 참가,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육성 발전하는 계기 마련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종합축제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시는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육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컨벤션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여 해외 환자 유치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해운대 베그코에서 '2013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의료관광컨벤션은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권의료산업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이번 의료관광컨벤션 전시장은 87개 업체 126개 부스가 마련돼 의료관광관, 해외특별관, 치료치료

관, 메디뷰티관, 의료분쟁상담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했다. 의료관광관에서는 부산 거주 다문화 가정 500여 세대에 무료 건강검진을 해줬다. 의료분쟁상담관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이 참가해 시민들의 의료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해 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임상시험 세미나, 부산시병원회의 의료경영 세미나, 국제임플란트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열리며 부대 행사로 해외 바이어 의료기관 팸투어, 의료관광 체험 행사,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손해식 편집위원



동부산관광광단지에 첫 외국자본 유치성공

국내 최대규모해양수족관, 수중호텔·해양동물 생태체험관 등 조성



동부산관광광단지의 첫 외국자본 투자사업으로 조성되는 아시아 최초의 인공 라군형 아쿠아리움 조감도. (부산도시공사 제공)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정짓는 등 동부산관광단지의 가능성을 인정해 투자를 결정한 외국자본은 아시아 최초·최대의 인공 라군(lagoon·모래 등으로 바다와 분리돼 생긴 호수)형 해양수족관을 건립하게 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이하 골드시코리아)와 동부산관광단지 내 휴양·교육형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 및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임치용 골드시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참여하는 첫 '외국인 투자기업'인 골드시코리아는 부산도시공사와 협약 체결에 따라 동부산관광단지 해안에 위치한 휴양문화시설 부지 3만 8천900㎡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수족관과 수중호텔, 해양동물 생태체험관을 조성한다. 이들 3개 시설을 모두 포함한 아쿠아리움의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7만 3천㎡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해양수족관은 수조용량 1만 5천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큰 제주아쿠아리움(수조용량 1만 800)보다 1.5배, 부산해운대구 부산아쿠아리움(수조용량 3천500)보다 4배 가량 크다. 또 이 수족관은 지금까지 국내에 건립된 해양생물 전시 위주의 시설과 달리 체험과 교육 기능을 갖춘 라군형으로 조성된다. 관람객들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해양생물의 생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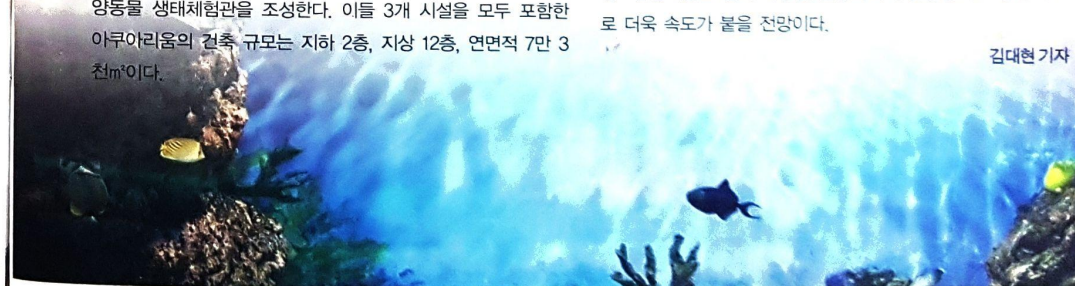
수족관과 함께 조성되는 55실 규모의 수중호텔은 객실에서 수족관을 즐길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다. 객실 한쪽의 벽면 전체가 투명 유리의 수족관과 맞닿도록 설계. 바다 속에서 물고기와 함께

잠을 자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드시코리아는 휴양형 아쿠아리움 조성에 부지매입비 138억 원을 포함 해 총 1천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오는 201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쿠아리움이 완공되면 CJ테마파크, 롯데쇼핑(주)의 프리미엄 아울렛들과 함께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 시설로 단지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부산관광단지는 이번 유치 성공으로 전체 투자유치 대상 부지의 72%(면적 기준)에 대한 투자가 확정된 상태.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6곳의 사업자와 투자유치 협의 중으로, 연말에는 83%까지 투자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아울렛들과 랜드마크호텔 등 주요 상업·관광시설도 연내 착공될 전망이어서 관광단지 조성은 앞으로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대현기자



산이 높아 하나님과 가까운 곳 중국 국가 公園省인 貴州省(꾸이저우)을 가다



귀주성 여유국 鄭勉 부국장은 귀양시내 금강선화 호텔 VIP룸에서 개최된 만찬회장에서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인만큼 앞으로 임도시간의 우호증진과 관광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데 서로가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이어 부산시 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은 "관광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과 감동을 이어주는 만큼 귀주성과 부산시는 상호관 광교류를 통해 발전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광협회는 이태섭 회장을 비롯, 강준구 부회장, 서학영 부회장, 김해룡 부회장, 조용황 이사, 박석하 사무국장 등 일행 16명은 지난달 18일 부터 24일(6박7일)까지 중국 귀주성 여유국 초청으로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貴州省(꾸이저우)은 중국의 남서부에 위치, 면적은 17만 6,000㎢, 인구는 3,959만 명이며 그 중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는 17개 소수민족 인구가 39%를 차지한다. 꾸이저우성은 산천이 아름답고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며 관광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여 '중국 관광의 보고, 세계의 천연공원'이라 불린다. 꾸이저우성은 세계적으로 카르스트지모 발육이 가장 전형적인 지구의 하나로 카르스트지역이 전성 총면적의 73%를 차지한다. 이처럼 특수한 지질형태와 지리여건은 산·하천·폭포·동굴·호수·삼림을 집대성한 녹색 카르스트풍모를 형성했다.

꾸이저우성에 사는 여러 민족들은 장기간의 생산과 생활 가운데서 원시생태 문화와 순박한 풍속습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특색의 건축·복식·음식·결혼풍속·명절축제·가사 등 고유한 민족문화를 그대로 남아 있다. 꾸이저우는

예랑(夜郎)문화·툰바오(屯堡)문화를 전형으로 하는 산지대 문화 발상지와 인류 사전(史前)문명 발원지의 하나로써 각 시기, 각 지역의 문화원소가 한데 집중되어 눈부신 문화대관원을 이루었다. 꾸이저우성은 홍군 장정시기 장정기간이 제일 오래고 전선이 제일 길었으며 유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성으로서 홍색관광에서 빼놓을수 없는 곳이다.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며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으며 삼림 복개율이 높아 이상적인 피서 휴양지로 꼽힌다. 세계관광기구 사무국장 브랑자리는 꾸이저우를 시찰하면서 이곳은 "문화·풍광·생태·가무·미주가 모두 훌륭한 고장"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

현재 꾸이저우성에는 세계자연유산 1곳, 국가급 풍경명승구 13곳, 국가급 자연보호구 8곳, 국가삼림공원 21곳, 국가지질공원 6곳, 국가광산공원 1곳, 중국생태박물관 4곳,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대상 39곳, 전국 유명 역사문화도시 2곳,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 31종 40개가 있으며 또한 관광여행·휴양여행·시골여행·문화여행·홍색여행·생태여행 및 특별여행을 결합한 다원화 상품시스템이 이루어져 국내외 각종 여행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

"낯선 미지의 세계, 낯선 경험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여행은 그렇게 일상을 뒤엎는다. 여행을 좀 더 긴 호흡으로 현지인처럼 머무르며 하루하루를 그곳의 문화, 그리고 체험을 통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난다. 그리고 여행후에는 이번 여행을 기억에 영영남아 철학적 논제를 제공해준 여행으로 기억하게 될것이라고..."

또한 여행을 낯선곳에서 길을 잃어도 즐길수 있는 약간의 호기심으로, 특별한 곳이 없어 보이는 현지인의 일상을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볼수 있는 순수함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에 세상의 신이 준비해 놓은 우연이 더해지면 여행은 비로소 완성된다.

또 여행을 현지인의 삶과 신비롭고 속깊은 문화유산, 그리고 골목길을 돌때마다 어떤 여행가서도 보지 못한, 그래서 결코 상상할수 없었던 풍경들과 마주하게 되는 기쁨에 잠시 혼미해진 아찔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게 여행이 아닐런지...



귀양시 천하담위 천상등을 앞

5000년 중국역사를 보려면 산서(山西)로 가라는 말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여행하면 수도베이징, 동쪽 해안지대의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내륙의 유명관광지 서안, 계림, 장가계, 우루무치 등의 여행지에만 관심이 쏠려있어 일반 여행자들에게는 서남부의 귀주(꾸이저우)라는 지방부터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귀주는 중국어 발음 그대로 읽으면 꾸이저우로 읽힌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여행기에서는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냥 한자를 표기법인 귀주성(貴州省)을 사용했으며 필요하면 현지를 사용을 병기 했다. 귀주성은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 속살들이 하나 둘 알려지기 시작한 곳은 불과 몇년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인 여행자는 1년에 2,000여명, 그중에서 부산에서 온 여행자가 많다고 김천호 가이드의 귀뜸이다.

김해국제공항에서 12시30분 중국동방항공기에 탑승, 1시간 20분 남짓 걸려 상해국제공항에 도착. 3시간후 귀주성 성도인 귀양(꾸이양)성 도착한 시간은 7시 30분 시내노보텔 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튿날 조전족 가이드 김천호씨는 7년동안 장가계에서 가이드생활을 하다 3년전부터 귀주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머무는 시간이 긴만큼 귀주의 역사나 자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버스안에서 가이드가 들려주는 풍경에 대한 설명과 귀주성 역사이야기들은 별준비 없이 떠나온 나에게 단비 같은 정보들이었다.

천연(天然) 안순(安順)시

안순(安順)시는 꾸이저우성 중서부에 위치, 중국 우수관광도시의 하나로서 면적은 9,269km², 인구는 260만 명이며 예로부터 '원난(瀾)의 인후, 꾸이저우(貴州)의 복지'라 불려오는 꾸이저우성의 중요 도시이다.

중국의 우수 관광도시인 안순시는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카르스트 지질경관이 많고 전형적이며 하천과 계곡이 종횡으로 뻗어 있고 산봉과 석림이 비독일처럼 산재해 있다. 경내에는 100여 개의 폭포, 1,200여 개의鍾유동이 있는데 그 중에는 황귀수(黃果樹) 폭포·용궁·거투하(格凸河) 3개의 국가급 풍경명승구가 있고 화장대계곡, 텐타이산-스라허, 쉰샤이(梭羅) 3개의 성급 풍경명승구 및 관링(關嶺)국가지질공원과 구룡산국가삼림공원 등이 있다. 안순은 다민족 집거구역이다. 이곳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는 거로족·요족·부이족 등 소수민족들은 독특한 전통 문화와 습속을 지켜오며 다채로운 민족풍정을 이루어 놓았다. '천연 에어컨'이라 불리는 안순시는 연간 평균기온이 14℃~16℃이고 태양복사가 낮아 사계절 언제나 여행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호텔·음식·교통·유람·쇼핑·오락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황귀수폭포

황귀수대폭포(높이74m, 너비81m)를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폭포 18개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의 폭포군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황귀수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향, 좌우, 앞뒤의 여섯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다. 명나라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인 서하객(徐霞客)은 "진주를 두드리고 옥을 깨뜨리듯이 무량울들이 마구 튀는데 물안개들이 하늘에 솟아나기에 참 굉장한 장관이다"라고 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황귀수 국가급풍경명승구에는 황귀수 대폭포를 중심으로 돌마을, 천성교, 적수탄폭포, 두파담, 낭궁 등이 있으며 관광 시설이 풍부하고 철도, 고급도로, 고속도로, 공항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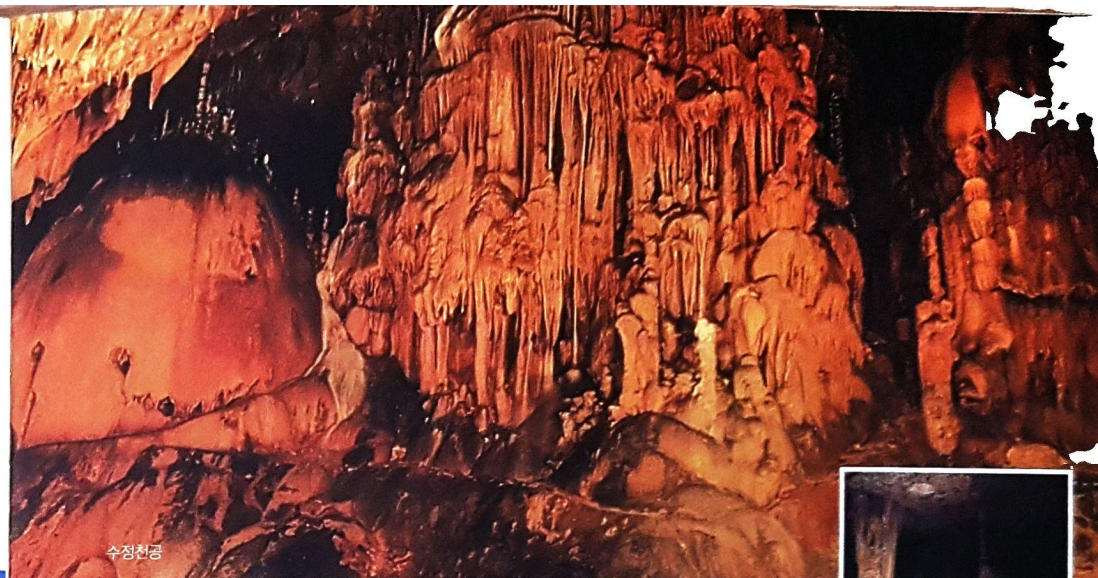


천태산 천룡(天龍)

천룡민속마을은 600~700여 m거리 양쪽에 은으로 만든 귀걸이, 팔찌, 목걸이 그리고 소뿔로 만든 우각제품 등 각종 수공예품을 직접 제작, 관광객들에 판매하고 있으며 아낙들은 예쁜 꽃신, 빗, 장식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직접 만든 각종 수공예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한다.



수정천굴

직금동(植金洞)

즈진(織金) 현도에서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관파이(官寨)향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이름난 작가 펑무(馮牧, 1919~1995)는 '황산을 보고나면 다른 산을 보고 싶지 않고 직금동을 보고나면 동천이 더 없다'라고 직금동을 칭송한 바 있다. 직금동은 현재 국가급 풍경명승구·국가지질공원·중국의 40개 관광승지의 하나·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굴로 규모가 방대하고 경관이 독특하며鍾유동 유형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가장 뚜렷한 아름다움은 동굴안 공간이 크고 변화가 많으며 경관이 웅장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공간과 경관의 조합이 잘됐다. 시간 30분 소요



석주금굴

용궁(龍宮)

시수이(西水)구 남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카르스트지모 경관이 집중된 곳으로 국가AAAAA급 풍경구·국가급 풍경명승구이다. 안순시구에서 27km 떨어져 있다. 중심풍경구는 길이가 5,000m되는 수용(水洞)鍾유동군이다. 동내에 거꾸로 달린鍾유석은 천태만상을 이루고 양상이 매우 생동하여 '천하 제1수동(水洞)'이라 불린다. 용궁풍경구는 현재 중국에서 제일 긴 수용동굴, 제일 큰 굴속 폭포, 제일 낮은 천연복사율등 '3개의 제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짙은 하천이 많고 동굴내 불당이 큰 '3절'로 유명하다. 현재 1,240m의 수용동과 동혈불당 2만여 m²의 동굴중앙이 이미 개방되었다.



귀양(귀양)시

귀양(貴陽)시는 약칭이 '축(筑)'이고, 귀저우성 성도이며 중국 우수 관광도시의 하나이다. 면적은 8,034km², 인구는 400만이다. 이곳은 겨울에 몹시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으며 연간 평균 기온이 15.2°C여서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지상에는 쑤(저우)항(저우)이 있으며 기후가 좋기로는 귀양을 꼽아야 한다'는 설이 있다. 2006년 귀양은 '중국의 피서 도시'라는 칭호를 획득했다.

녹색은 귀양시의 기본 색깔이다. 도시를 둘러싼 삼림면적이 150만무(무는 약 200평)에 달하여 2004년 귀양은 중국의 첫 '국가삼림도시'로 되었다. 귀양에는 화계(花筵)·홍풍호(紅楓湖)·남강계곡 등 아름다운 산천과 깊고 고요한 종류동 경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갑수루(甲秀樓)·검령산(黔靈山)·칭엔고진(青岩古鎮)·향지구(香紙區) 등 인문고적이 많아 유구한 문화가 흘러넘친다. 이밖에 다채로운 민족풍정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준다. 귀양은 이처럼 독특한 풍모로 하여 유엔이 확정한 인류의 '자연 회귀(回歸) 관공에서 첫 손에 꼽히는 형선지의 하나로 되었다. 귀양시는 귀저우성의 교통중추와 관광집산중심이며 또한 귀저우성내에서 관광시설이 제일 완벽한 도시이다. 귀양에서 여행객들은 다정하고 주도한 관광서비스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귀양을 중심으로 한 귀저우성의 전체를 즐겁게 관광할 수 있다.

"이곳은 500~600년 중세에 지어진 집들 사이 골목길을 따라 걸다보면 여유와 사색과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수백년의 시간이 교차한다. 중세대에 온듯한 골목길은 곧 역사의 길이었다."



청암고성거리를 걷고 있는 관광객

청암고성

청암고성은 명나라 초기 군사용 보루로 지어졌다가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후에 보루를 확장, 지금의 청암고성이 되었다. 한족문화와 부의족이 공존하는 이곳은 500~600년 중세에 지어진 집들 사이 골목길을 따라 걸다보면 여유와 사색,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수백년의 시간이 교차한다. 중세대에 온듯한 골목길은 곧 역사의 길이었다. 골목길을 나와 큰길가에 나오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공예품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여러 먹거리 중에 돼지 족발이 이곳의 명물이다.



천하담

2인승 우동력보트로 30여분 동안 좁은 동굴수로를 양쪽바위에 부딪히면서 동굴 밖으로 나오면 햇빛을 받은 수초들이 하늘거리는 넓은 호수가 그곳에 있다. 보트에 내려 천상동굴에 들어서면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수놓아져 있는 신비로운 동굴천타지가 보이는이로 하여금 황홀감을 갖게 한다. 폭포, 깨끗한 샘, 깊은 못, 기암괴석, 역감의 세월을 담은 문화자연을 몸으로 받아낸 동굴수는 말과 글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을 완성해 놓았다. 천하담은 중국에서 가장 폭이 넓은 폭포를 볼수 있으며 그 길이가 1000m 넘는다고 한다. (동굴길이 1km 12칸 3호)



선천이 수려한 천시난부이족·묘족 자치주, 흥의시(싱이)

천시난부이족묘족자치주는 면적이 1만 6,804km², 인구 314만 명이며 그중 부이족·묘족·이족·회족 등 소수민족 인구가 42.47%를 차지한다. 자치주정부 소재지는 싱이(興義)시이다. 이곳은 선천이 수려하고 경치가 매우적이며 세계적으로 추형 카르스트 지질지대가 전형적인 곳이다. 생물자원 또한 풍부하고 역사 문화가 오래며 민족풍정이 독특하고 기후자원이 유달리 뛰어나다. 자치주정부 소재지인 싱이는 겨울에 혹한이 없고 여름에 혹서가 없으며 대기가 청신하고 기후가 살기에 좋으므로 2006년 중국 피서관광도시 리스트의 제15위를 획득했으며 중국의 최적 인간주거환경과 피서지의 하나로 평가되고 또한 중국 관상석회로부터 '중국관상석의 고향'으로 명명되었다.

마령하대협곡

싱이(興義)시구에서 3km 떨어져 있는 국가급 풍경명승구 마령하계곡 만봉림의 3개 핵심풍경구의 하나이다. 거대한 지층(地縫)으로 되어 있는 이 계곡은 보기 드문 지질기관으로서 '천구지봉(天溝地城)'이라 불린다. 골짜기 길이 74.8km, 너비 50~150m, 깊이 120~280m, 골짜기의 바닥은 지면보다 200m 낮으며 지붕장곡·군검현래·탄산칼슘폭포와 원생태식피를 특색으로 하는데 웅(雄)·기(奇)·험(險)·존(峻)을 일체화한 청성화강풍경구가 정화를 이룬다. 1998년 4월 중국 제1회 국제겨류 카누투류경기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750여개의 내리막계단 그리고 1000여개의 계단을 험곡따라 걸어야한다.



마령하대협곡

만봉림

싱이시 사우툰(下五屯)에 위치, 국가급 풍경명승구인 마령하계곡 만봉림의 3개 핵심풍경구의 하나이다. 만봉림은 해발 2,000여 m되는 칠봉(七捧)고원의 변두리에서 해발 700여 m의 만봉호 북안, 황니하에 이르기까지 부채형으로 펼쳐져 있으며 구불구불 안릉(安龍)·진평(貞豐) 등지로 이어져 길이 200여 km, 너비 30~50km의 환형 산지대를 형성했다. 만봉림은 중국에서 면적이 제일 크고 제일 전형적인 봉림으로 열진봉림·보검봉림·군룡봉림·나한봉림·첩모봉림 5대 유형으로 나뉘며 제각기 특색을 지닌채 보기드문 카르스트 경관을 구성했다. 명대의 지리학자 서하객(徐霞客, 1587~1641)은 두 차례에 걸쳐 구이저우 남서부의 만봉림을 '광할하기가 수천리, 서남부에 명승을 이루었노라'라고 쓴 바 있다.



만봉림

만봉호

싱이시 빠제(巴結)진에 위치, 국가급 풍경명승구인 마령하계곡 만봉림의 3개 핵심풍경구의 하나이며 특색은 만봉림을 "고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만봉호 호면은 176km²이고 30여개 섬·58개 반도·82개 할만·12개 내호(內湖)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속의 하천이 있고 하천속에 산이 있는 특이한 경관을 형성했다. 만봉호는 산봉이 침침하며 아침·점심·저녁으로 경치가 변하므로 '3경'이라 한다. 호숫가에는 부이족 마을들이 옛모습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 만봉호는 또한 '뉘시 천당'으로 되어 있어 사절 상객이 많은 뉘시 여행객들이 모여든다.





뒤쪽으로 생유봉 두봉우리가 보인다.

사계절이 한눈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귀주성

귀주성은 일년 사계절 모두 여행에 적합하다. 봄은 구이저우에서 꽃구경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3월에서 4월 기간에는 안순의 백리두견이 유명하며, 여름은 구이저우에서 레프팅을 하며 피서를 즐길 수 있다. 구이저우는 맑고 깨끗한 강과 강의 지류들이 있어 다양한 레프팅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가을에는 여러 민족축제들과 불거리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어딜가나 즐거운 축제를 만날 수 있다. 겨울에는 온천하기 좋은 계절이므로 구이저우에 다양하게 분하고 있는 온천을 골라 즐길 수 있다.

귀주성 교통

귀주성은 중국 서남부의 분지 지역으로 지형적으로 통행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교통의 요충지 달게 개발을 통해 꾸이양, 심이, 퉁런, 리뽕, 리핑 등 여러 군데 공항이 들어섰다. 또한 귀주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 역시 완비되어 있어 사동팔달의 편리함을 보장한다. 이곳은 산맥이 많이 얽혀있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고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 편안한 교통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요즘에는 까오테라고하는 고속 철도를 놓고 있어서 조만간 교통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귀주성 특산품

귀주성은 많은 민족 특색의 공예품과 토산품들이 많으며 이곳만이 가진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다. 이곳은 고추의 산지로 유명하며 원목예술, 종의악, 마오족의 은제품, 우각제품 그리고 민족문화가 느껴지는 여러가지 토템 가면 등이 유명하다. 또한 이곳은 차의 산지로도 유명하다. 중국 국내의 차 생산지 중 유일하게 높고 낮은 일조량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특등 차입을 생산한다.

- 치엔홍: 구이저우 홍차는 그 향이 깊고 상쾌한 미감을 자랑하는 구이저우의 특산품이다.
- 야생 천마: 구이저우 고원의 자연 생태 환경에서 자라는 천마는 품질이 우수하고 사람들에게 산 속의 진품으로 알려져왔다.
- 라관(염색제품): 동양 최고의 염색 가공이라 불리울 정도로 마오족, 뿌이족, 라오자족, 수이족, 야오족 등 각 민족이 가진 전통 문양과 색채가 돋보이는 염색가공품들이 유명하다. 선물용, 기념품으로 인성맞춤
- 구이저우 뿌이족 카펫: 고품질의 양모로 수공 제작한 뿌이족의 카펫. 탄성이 있으며 가볍고 세련됨이 특징. 민족 특색과 함께 실용성이 돋보인다. 여러가지 디자인의 카펫을 골라볼 수 있다.
- 원목예술: 등나무 등 풍부한 삼림자원 덕분에 목재 예술이 발달했다. 자연미와 민족 특유의 멋스러움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골고루 원목 예술에 스며있다.
- 구이저우 민족 자수제품: 천지인들이 만든 자수와 뜨개 제품, 수공업으로 만든 것이라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이며 민족 특유의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들이다.

부산~전남 잇는 동·서 통합형 남도해양관광열차운행

부산·경남 남해안권 경제 관광 활성화에 영향 클 것



코레일이 최초로 공개한 거북선 형태의 '남도해양관광열차(S-트레인)' (코레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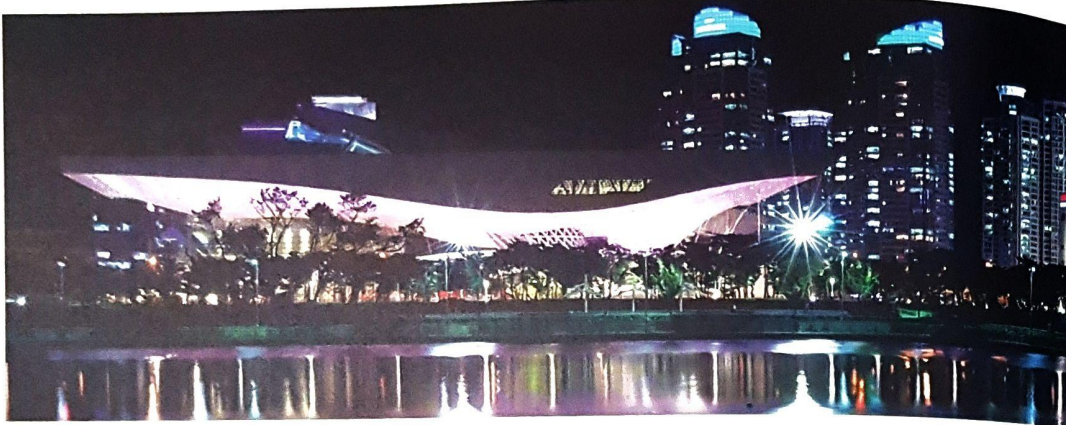
부산과 전남을 잇는 동서통합형 '남도해양관광열차(S-트레인)'가 이달 말부터 공식 운행에 들어간다. 특히 운행구간 인근 지역에는 테마역과 같은 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이어서 부산·경남 등 남해안권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남도해양관광열차 운영계획'을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하고 개통식과 시승행사를 거쳐 상업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관차와 5량의 객차(218석)로 구성된 S-트레인은 남도문화를 접목한 신개념 기차로 불린다. 부산·경남권과 광주·전남권을 관통하게 돼 동서통합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거북선 형태의 열차 디자인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운행노선은 ▷부산—구포—진영—창원중앙—마산—진주—북천—하동—순천—여천—여수엑스포, ▷광주—광주송정—남평—보성—특랑—별교—순천—하동—북천—진주—마산 등 2개 노선으로 편성됐다. 부산발 열차의 운행구간은 250.7km, 광주발 열차는 261.4km다. 2개 노선의 운행시간은 편도기준 4시간 30분이다. 하루 운행횟수는 왕복 1회씩이다.

운행 시간을 보면 부산에서 오전 8시40분에 출발한 뒤 오후 1시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하게 되고, 오후 5시55분 여수엑스포역을 떠나면 밤 10시9분 다시 부산에 도착하게 된다. 코레일은 향후 수요와 이용실적에 따라 구간이나 운행일을 변경하는 등 해당 열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S-트레인의 객실은 힐링실 가족실 카페실 다례실 레포츠실 등 5량으로 구성됐다. 카페실(식당실)에서는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커피와 남도의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남도의 명품 차가 제공되는 다례실에는 국내 열차로는 처음으로 좌식이 도입됐다.

코레일은 S-트레인 개통에 맞춰 테마역과 특산물 판매장, 마을기업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의 벚꽃축제와 마산지역의 여름해양축제 등 지역행사와 연계한 계절별 특화상품도 운영해 S-트레인을 남도의 대표적 관광 인프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직접 추천한 '트레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 6월 1차로 남도의 대표적인 음식점 30곳과 서비스 우수 숙박업소 17곳을 선정했다.



개막작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바라'축복'

폐막작 김동현 감독의 '만찬'

2013 BIFF, 70개국 301편 은막의 향연 펼친다. 10월 3~12일까지 영화의 전당, 남포동·해운대일대 상영관 등

올 부산국제영화제는 참가국가와 초청작품 수를 다소 줄였다. 보다 내실 있는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 택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70개국 301편의 작품이 3~12일까지 은막의 향연을 펼치게 된다.

개막작은 부탄의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바라'축복', 폐막작은 우리나라 김동현 감독의 '만찬'이 선정됐다. 올해 BIFF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월드프리미어 95편,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처음 개봉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42편이다. 월드 프리미어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모두 지난해보다 작품 수가 늘었다. 전체 초청 작품 편수는 줄었지만 BIFF의 내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올 한해 제작된 거장들의 신작 등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등 7개국 6편이 최종 낙점을 받았고, 아시아 영화의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아시아 영화의 창'에는 20개국 54편이 초청됐다.

새로운 영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뉴 커런츠'는 11개국 12편, 한국영화의 현재를 보여주는 '한국영화의 오늘'은 24편이 상영된다. 이밖에 월드 시네마 28개국 51편, 플래시 포워드 부문 28개국 32편, 와이드 앵글 37개국 67편이 소개된다. 부산국제영화제만의 자랑인 야외에서 영화를 즐기는 '오픈시네마'에는 7개국 8편이 초청됐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중앙아시아 지역 수직을 소

개하는 '중앙아시아 특별전'을 마련했다.

한국영화계의 살아있는 역사인 임권택 감독의 회고전, 지난 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한국 영화계 뉴웨이브의 중심이었던 고 박철수 감독 추모전도 특별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영화마켓도 한층 커진다. 부산국제영화제 핵심사업인 아시아필름마켓(AFM)에는 미주와 유럽 바이어들이 대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처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북 투 필름' 행사는 올해 웹툰 분야까지 확대해 출판업과 영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학술행사도 내실을 다지게 된다. 부산영화포럼은 '비프 컨퍼런스 앤 포럼'으로 개편, 전문가와 관객의 눈높이를 함께 맞추는 맞춤형 컨퍼런스를 열어 관객 참가를 늘리고, 영화관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도 더 단단하게 다지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영상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맞춘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영진위가 들어설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영진위 부지를 활용, 다양한 이벤트 행사장과 편의시설을 늘려 영화축제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3~12일 영화의 전당 등 7개 극장에서 은막의 향연이 펼치게 된다.

이효영기자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故 신성희 '평면의 진동' 원화...흥이 넘치는 축제 의미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공식 포스터(사진)가 공개됐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고(故) 신성희 작가의 '평면의 진동' (2008년 작)을 원화로, 최순대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이 디자인한 작품이다.

'평면의 진동'은 신 씨의 독창적 고유 화법인 누아주(nouage·매듭회화) 기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다. 캔버스에 색점과 색선으로 채색한 화면을 만든 뒤 이를

찢고 접고 매듭짓는 것이 누아주 기법이다. 점과 선, 평면과 입체가 결합된 신 작가의 작품은 이번 공식 포스터에서 관객과 영화인이 씨줄과 날줄처럼 만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격과 종합예술인 영화의 특성을 드러냈다.

역대 영화제 중 가장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의 포스터로, 올해 영화제의 지향점인 '흥이 넘치는 축제'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1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3-12 October, 2013



부산 50년의 사랑(主題)과 감동을 주는 지상 최대, 최고의 제9회 부산세계불꽃향연

25일 전야제콘서트 벅스코 오디토리움, 26일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에서 거리축하 퍼레이드 후 가슴 멎는 듯 화려한 불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안리 밤바다를 '불의 꽃밭'을 만드는 부산 세계불꽃축제가 25-26일 양일간 사상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부산멀티불꽃쇼'는 세계 최고, 최대를 자랑한다. 숨 쉴 틈 없이 1시간 동안 온갖 크고 작은 불의꽃들이 터지며 눈을 즐겁게 한다. 광안대교를 활용한 국내 최장 길이의 1km 나이가카라 불꽃쇼, 터지면 직경 400m짜리 거대한 불의 꽃을 밤바다에 피우는 25인치(63.5m) 대통령 불꽃, 하늘을 나는 불새도 있다.

파도 위에서 터지는 수상불꽃도 새로운 기술이다. 물 바로 위에서 터지는 불꽃 그리고 물에 비치 어너거리는 그 그림자... 이태백의 시(詩) 구절을 연상시키는 몽환적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 불꽃놀이가 될것이라며 "매인 행사 사이의 각 행사들도 다양해 이 기간 부산을 찾는 분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산이 들쭉

광안리 일대는 이미 '불꽃축제 특수'에 대한 기대로 만발하다. 26일 메인 행사의 경우 각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이다. '불꽃쇼'를 즐길 수 있는 명당자리의 횃집·카페·음식점 등은 이미 자리가 동났다. 호텔 역시 만원 사례. 호텔은 해운대 지역까지 빈 방이 없을 정도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3만~4만명 이상이 찾을 전망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수영구는 아예 축제를 신설, 불꽃놀이 특수를 더욱 짝짝하게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수영구는 이 기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130여곳의 카페·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 참가하는 '제3회 광안리 비치 카페페스티벌'을 연다. 축제 참여 업체들은 바리스타 체험·사일런트 디스크·요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세계불꽃축제 나들이객'에게 손짓한다.

불꽃축제 명당자리는 동백섬, 이기대, 백산, 광안리 수변공원이 으뜸자리

독일의 철학자 아드리노는 말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예술의 가장 완전한 형태다. 그 영상이 최고의 완성 순간에 보는 이의 눈앞에서 다시 살아져 가기 때문이다."라고

광안리가 아니더라도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우선 황령산, 산허리를 따라 광안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 워낙 많아서 매년 1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 이쯤되면 이곳도 숨은 명당이라고 보다는 제2의 관광 명소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해운대 동백섬과 수영만 매립지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관광 명소. 특히 동백섬은 광안리에서 바라본 불꽃의 모습은 많은 사진작가들에게 사랑받는 부산불꽃축제의 사진 구도이기도 하다. 이기대는 200명이 넘는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었고 주변 절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광안리 해수욕장 최우로 위치한 민락수변공원과 남천섬의비치뷰 광과제도 인기다. 특히 민락수변공원은 스탠드까지 마련돼 있어 앉아서 관람하기 편하다. 때로는 정면보다 측면이 입체감이 살아난다. 그에 비하면 민락동 부산시에서 가장의 백산은 의외로 힘이 떨어져 있지 않은 명당. 높은 건물들이 있고 적 적 불꽃들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중구청 크리스마스축제, 해운대구청 모래축제 등 축제상표등록추진



해운대 모래축제의 모습

부산의 지자체마다 흥행에 성공한 지역 축제의 상표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상표 등록 붐은 진주시 유등축제 표절 시비가 발단이 됐다. 현재 진주시와 서울시는 서울등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바야흐로 지자체 간에도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볼 수 있는 시절이 온 것.

중구청은 올 겨울 광복동에서 펼쳐질 제5회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의 상표 등록을 위해 최근 축제추진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동일한 축제가 양산

되는 걸 막고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에 관한 한 중구가 원조임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자는 게 중구청의 계산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클크리스마스트리 축제는 광복동에 5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끌고 왔다. 주말이면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성황을 이뤄서 자부심도 대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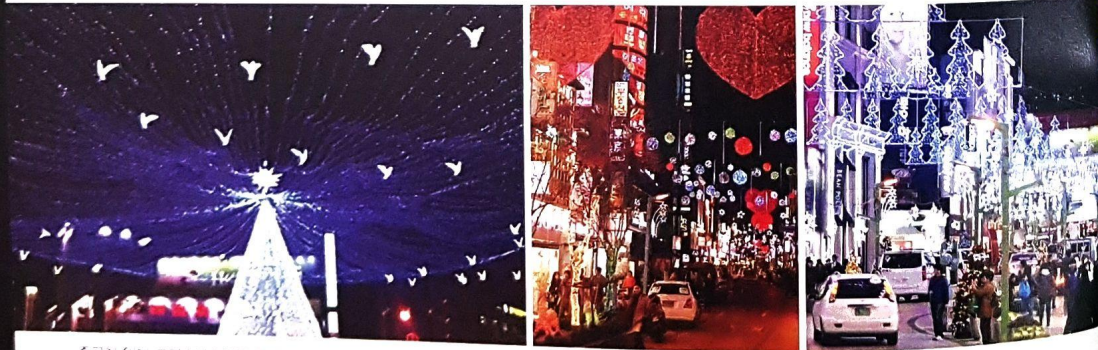
또 해운대구는 9회를 맞은 모래축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상표 등록에 나선 상태다. 해운대구청은 "전국적으로도 연꽃축제만 10여 개가 넘는다. 모래축제 콘텐츠 보호는 사실 하루 이를 거론된 게 아니다. 해안이나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차로 문이만 해외도 불안하던 차에 이번 등축제 시비가 터져 상표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제를 상표 등록한다고 해도 축제와 관련 콘텐츠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등록이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온 영상물이나 저작물, 게임 등은 콘텐츠 자체가 등록이 가능하지만 축제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북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구포나루대축제의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구포나루대축제는 역사는 짧지만 서부산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형 축제다.

김대현기자

가을의 길목에서

향일화(向日葵)라고도 일컫는 해바라기.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로서 높이가 2m 이내로 자라며 7-9월에 꽃이된다. 10월이면 씨를 볶아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사용한다. 줄기속은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뇨, 진해, 지혈에 효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태양의 꽃, 황금꽃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페루의 국화(國花)이며 미국켄자주주화(州花)이기도 하다. 들녘에 노랗게 된 해바라기를 보며 잠시나마 일상의 무로함을 달래게해주는 신의 선물이 아닐런지?



중구청 일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10월은 부산축제의 달 부산자갈치축제 · 동래읍성역사축제 · 부산국제영화제 · 부산불꽃축제 등 풍성



부산자갈치축제 길놀이 장면 (사진: 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제공)

10월 한 달간 부산은 풍성한 가을축제를 잇따라 펼친다. 부산국제영화제 · 부산불꽃축제 같은 대형축제부터 부산자갈치축제 · 고등어축제 ·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고 즐기고 참여할 지역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부산자갈치축제 9~13일 | '오이소, 보이스, 사이소를 외치는 자갈치 아지매의 흥겨운 목소리' 전국 최대, 최고 명성의 수산물 축제인 부산자갈치축제가 10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13일 자갈치시장 · 유동산공원 · 광복로 등에서 열린다. 2천200인분의 세계 최대 회 비빔밥을 만드는 것은 물론 수산물 요리 시연회 등 바다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민선으로 입항인배에서 자갈치아지매가 생선을 '다라이'(바구니)에 담아 운반하는 모습을 재현한 '뽕이 만선제'는 올해 처음 선보인다. 부산의 상징 자갈치 아지매들이 펼치는 3중 경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키즈랜드, 추억의 영화를 감상하는 자갈치시네마 등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동래읍성 역사축제 11~13일 |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10월 11~13일 동래읍성 북문광장 · 동래문화회관 · 온천장 등에서 열린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전투를 재현한 뮤지컬, 세가닥 동래줄다리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옛날 장터를 재현한 동래장터에서는 조선시대 화폐모양을 본떠 만든 동전을 구입해 동래파전, 막걸리를 맛 볼 수 있다.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각종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구포나루대축제 11~13일 |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 축제가 10월 11~13일 북구 화명생태공원과 낙동강 일원에서 펼쳐진다. '감동지희(甘同之喜: 낙동강 축제를 통해 기쁨과 감동을 드린다)'를 주제로 내 고장 예술인 작품전, 수상공연 '감동선유(甘同船遊)와 세미뮤지컬' '용의전설, 공연과 허수아비전시, 3세대 어울림 강변예술제, 강변 예술콘서트 등을 비롯해 뗏목체험, 소망축제 달고 '소원을 말해봐' 등 시민 참여행사가 잇따른다. 특히 역사 · 문화 재현 프로그램인 추억의 구포장터, 구포국수, 강동진 나루 주막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부산고등어축제 25~27일 | 부산고등어축제는 10월 25~27일 송도해수욕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일원에서 '국민생선 고등어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는 25일 고등어 관련 가장행렬인 길놀이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맨손으로 고등어잡기, 고갈비 화덕구이 체험, 송도100주년 바다보물 대탐험, 고등어경매잔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한다. 고등어요리대회, 전국 댄스경연대회, 전국주민자치회경연대회 등 불꽃 튀는 경연의 장도 펼쳐진다. 다음날 26일 제호 서구해양스포츠 제전과 남항대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눈길을 끈다.

■ 부산 10월 주요 축제

축 제	기간	장 소
철마린우불고기축제	3~6일	기장군 철마면 장천천 축제들녘
이순신장군 부산대첩 대제봉행	4일	가덕도 천성진성 내
수영강변 페스티벌	5일	수영강변 시민공원
광안리 생선회축제	7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부산자갈치축제	9~13일	자갈치시장 일원
동백성 문화관광축제	10일	동백성 일원
낙동강300리 구포나루대축제	11~13일	화명생태공원 일원
동래읍성 역사축제	11~13일	동래읍성 북문광장 일원
시상강변축제	12~13일	삼락강변체육공원
기장평안축제	13~14일	기장군 일광면 칠암항 일원
강서역동강 갈대꽃축제	18~19일	맥도생태공원
달빛음악제	19일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부산고등어축제	25~27일	송도해수욕장 일원
승학산 역사 등반대회	27일	승학산 일원

SPECIAL COLUMN

대동대학교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 및 교양지수를 높일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전문가를 양성하는 대동대학교 서비스경영계열



최 성 략 교수
대동대학교 서비스경영계열

“ 대동대학교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마케터, 통번역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권 의료관광에 대한 가치창조가 기대된다. ”



대동대학교 서비스경영계열은 관광경영과, 병원서비스경영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소믈리에 & 바리스타 과로 구성된 서비스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부산의 서비스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온 우리계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관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산시내 최초의 대학이다.

특히 관광경영과와 병원서비스경영과는 부산은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위해 의료관련 외국어 통역 및 입출국시 모든 편의를 도와 줄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전담 인력 양성, 의료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서비스 코디네이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관광 거점 구축과 의료와 관광산업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등 의료관광산업 전반적인 것을 위한 특화된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부하며 준비하는 과이다. 부산의 대표행사인 국제관광전 및 의료관광컨벤션행사에 부산지역의 교육기관을 대표하여 첫째부터 매년 참가 하고 있다.

대동대학교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마케터, 통번역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권 의료관광에 대한 가치창조가 기대된다.

호텔외식조리과는 "한식세계화"와 "한류문화"에 힘입어 국제화된 식음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호텔외식조리과는 호텔조리사 및 외식조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해 부산시내 특급호텔과 산학협력을 맺고 높은 취업은 물론 많은 학생들을 해외취업으로 보내고 있다. 호텔소믈리에 & 바리스타과는 지금 사회적 현상에 맞춰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는 직업으로서 외식문화 창출을 위해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고 감별하는 "소믈리에"와 레트로 된 커피 맛을 내고 다양한 연출로 고객에게 맛은 물론 보는 즐거움도 선사할 수 있는 "바리스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이다. 차별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동대학교"에서는 차세대 리더를 기르기 위해 2009년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 과를 신설하여 진철한 멋과 맛을 아는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지식사회 서비스전문가는 물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대동대학교 서비스경영계열은 미국 브루클린 대학, 뉴질랜드 국립 예시대학 유니버시티, 싱가포르 파크웨이 대학, 일본 오사카 국립대학과 연계하여 1+1+1 교환학생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년 전액 장학금으로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서비스경영 분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직업이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관광분야는 물론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유망한 직업인 서비스전문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대동대학교의 홈페이지(<http://www.daedong.ac.kr>)를 방문하여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실 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 영도다리 일원 새로운 관광자원 역할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영도다리 관문지역의 무질서한 가로시설물과 보행공간에 토털 디자인 개념을 도입,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영도경찰서 앞 '영도와 영도다리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을 비롯해 사업 대상구간 내 간판의 LED 간판으로의 교체, 시설물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며 영도 관문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영도다리는 시험운전을 거쳐 1966년 도개기능이 멈춘 뒤 재개통 된다.

이기대, 시민심터 갖춘 '자연마당'으로 거듭난다



생태복원 조감도

부산 남구 이기대가 생태를 복원, 시민심터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도시 생활권 주변에 훼손되고 방치된 곳의 생태를 복원, 국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 지난해 1월 환경부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기대 자연마당은 훼손된 습지, 초지, 숲 등을 복원해 다양한 유형의 생물 서식처를 갖춘 생태휴식공원 사업비 4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을 들여 내년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을 위해 먼저 과거 한센병 집단 거주지역이었으나 철거된 이후 척박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지역을 해양과 육상, 산림을 연계한 해안형 생태지역으로 복원한다. 난개발로 훼손된 지형과 단절된 하천·습지도 복원하고, 난대 침엽수림, 활엽수림 같은 해안지역 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산림과 평지, 습지에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우수한 해안경관을 즐기고 일제 포진지 같은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할 계획이다.

영도다리 11월 개통 앞두고 영도다리축제 열어

영도다리축제가 지난 6~8일 영도 남항대교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올 축제는 '추억의 박물관, 영도다리를 만나다'를 주제로, 11월 개통예정인 다리 복원을 기념해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특히 X-Sports 광장이 개장해 영도다리체험 놀이터와 청소년 놀이공간, 어린이 물보트, 인라인 스케이트 등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났다. 평생학습축제, 스토리텔링 매직&장사바위 인형극, 영도다리 역사대자보, 절영도 스탬프 투어, 흰여울문화마을 체험등은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됐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영도주민들이 영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화해 보여주는 '영도역사 시민퍼레이드' 고인돌 가족, 조가비 커피, 부족장 행차, 영도해매와 강강이, 금순이, 조선통신사 등을 소재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지난 7일 광복로 입구를 출발해

(구)전차종점~영선아래교차로~남항대교 수변공원까지 지정행렬을 벌였다. 제5회 궁선 금순이 선발대회와, 영도다리가요제가 8일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각각 열렸다.

영도구(구청장 어운태)는 축제주기관을 확대해 1950~60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학교, 점집, 만화방, 이발소, 구멍가게, 레코드방 등을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해 놓았다. 흰여울문화마을 체험도 입주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공예, 미술,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수변공원 행사장 출입터널에는 축제기간 영도다리에 얽힌 전설, 탄생, 활용, 해체, 재탄생 등을 주제로 다리 일대를 대자보 형식으로 게시했다.

이밖에 합합콘서트, 우리가락 우리마당 국악공연, 청소년스타킹, 추억의 밴드&영화 '악사들' 등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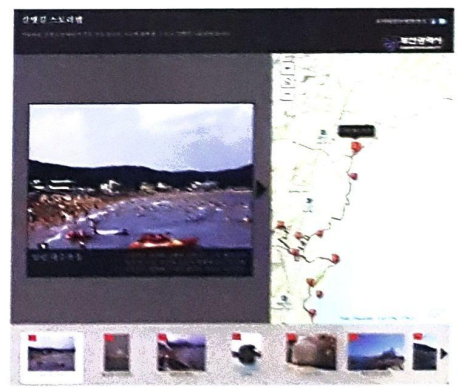
부산시 갈맷길 스토리맵 웹서비스

이제 갈맷길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 갈맷길을 걸으며 현재 자신의 위치와 주변 볼거리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 부산시는 갈맷길 스토리맵 서비스를 구축, 지난 2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갈맷길 스토리맵을 즐길 수 있는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갈맷길 스토리맵은 시민들이 부산의 명품길인 갈맷길을 이용할 때 주변 주요지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 것. 모두 9개 코스 21개 지점의 이야기와 사진 검색이 가능해 갈맷길 이용이 더욱 편리해 졌다. 특히 갈맷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있는 위치와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갈맷길 이용에 즐거움과 효율을 더했다. 스토리맵 서비스 웹 이용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스토리맵 사이트(galmaestory.busan.go.kr)에 접속하거나 생활공감지도 사이트(gmap.busan.go.kr)에서 갈

맷길 안내 코너에 있는 스트리얼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문의 : 유시티정보담당관실(888-2002)



가파른 산복도로 복지차원의 모노레일 건설

아바구길(부산역~까꼬막)에 위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

- 초량 168계단도 11월 공사, 주민편의 위한 전국 첫 시도

부산 산복도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보행약자를 돕기 위해 2개의 모노레일 공사가 올해 첫 삽을 뜬다. 관광용이 아닌 복지 차원의 모노레일 건설은 전국 최초이다.

부산시는 최근 중구 망양로 385번길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옆 계단을 따라 길이 80m(폭 6~8m)의 모노레일을 오는 9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한창이다. 사업비는 국비 10억8800만원을 포함해 25억9400만원. 모노레일카의 탑승 정원은 8명이다. 모노레일 주변에는 부산 최초의 근대학교인 개성학교를 설립한 박기중 선생 기념관도 들어선다. "모노레일은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라고 중구청 관계자는 말했다.

오는 11월에는 동구 초량동 '168계단'에 길이 65m인 모노레일(10인승) 공사가 시작된다. 이곳은 경사가 너무 심해 안전 사고 위험이 높지만 산복도로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내려갈 때 우회로가 멀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 모노레일의 종류는 차량을 선로에 걸터 앉히는 과좌식(跨座式)이다.

중구청은 현재 폭 3m인 '168계단'을 8m로 확장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주변 폐·공가 23곳을 썬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활력 증진 사업에도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68계단'은 특히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아바구길(부산역~까꼬막)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복도로 교통수단 설치 타당성 용역'을 통해 모노레일 설치 후보 계단길 14곳을 선정했다. 중구가 영주동 3곳을 비롯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계단길은 짧게는 55m에서 길게는 115m였는데 젊은 층도 허락대고 오를 만큼 경사가 심했다. 한때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검토했지만 비가 오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모노레일로 방향을 잡았다.



부산시 창조도시기획과장은 "현재 서구에서 동구 망양로까지 450여 개의 계단길이 있다. 내년에 모노레일이 시범운행을 한 뒤 효과가 크면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모노레일은 강원도 정선 황암동굴과 해남 땅끝마을 같은 관광지에서 주로 설치돼 있다. 산복도로 계단에 조성되는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이효영기자

중구 영주동 모노레일 조감도

낙동강하구언, 태종대, 이기대 등 12곳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교육·관광목적으로 활용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질 명소를 보존하고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21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 국립공원이 생물 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가지질공원은 지질 다양성과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질공원은 보호지역을 새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립공원과 같은 개발 제한 등의 규제가 적다. 그 때문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관광객 증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노릴 수 있다.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은 제주와 울릉도·독도에 못지 않게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다양한 지질명소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등 10개소, 울릉도·독도는 코끼리바위, 봉래폭포 등 23곳의 지질 명소가 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됐다. 최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부산시가 지역의 지질학 전공교수 등 전문가 용역을 통해 확정된 12곳의 '부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는 9000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지질 명소들이 망라됐다.

부산의 지질 명소 12곳 가운데 낙동강 하구는 지질학적 현상이 현재 진행형인 곳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진 삼각주의

여러 특징을 볼 수 있다.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주, 사구, 석호 등이 낙동강 하구만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철새 도래지로 이름난 습지의 다양한 동식물 상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운대와 두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등은 8000만 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호수 지형에서 만들어진 퇴적층과, 동시에 일어난 화산, 지진 활동의 증거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두송반도와 송도반도, 두도에는 공룡의 전성기였던 백악기의 다양한 공룡 골격과 동지 화석이 발견된다. 금정산과 장산, 백양산, 황령산은 현재 부산의 기반을 이루는 화산 활동의 결과물을 잘 보여준다. 특히 황령산 구상반려암은 아시아

에서는 유일하게 발견된 희귀한 암석이다. 12곳 가운데 낙동강 하구와 송도반도, 태종대, 이기대·오륙도, 금정산 등 5곳은 공개해설 장소로 운영된다.

김대현기자

부산 지질공원 후보지

낙동강 하구, 물운대, 두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금정산, 황령산, 구상반려암, 백양산



해운대지역 호텔 건축 붐

사업승인 13곳, 4곳은 이미 공사중. 객실수 2,000여실



해운대역 앞에 건설 중인 호텔 '리쿠에르'의 조감도

해운대지역에 호텔 건립 붐이 불고 있다. 13곳 중 10곳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사이에 추진된 것들이다. 또 13곳 중 9곳의 호텔은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4곳은 공사에 들어갔다.

규모나 성격도 다양하다. 중동의 P호텔의 경우 객실 수가 17실의 소규모 시설이지만, 센텀시티 옛 현대백화점 부지에 추진되는 '세가사미부산'의 호텔은 470실에 테마파크와 전시설이 함께 지어지는 대규모시설이다.

송정에 추진되고 있는 56실의 C호텔은 개인이 100억 원을 투자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대형 자본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되는 경우다. 우동에 추진되고 있는 '토요코인' 호텔이나 '세가사미부산'은 일본 자본이 투입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관광호텔은 관광 사업을 위해 정부가 설립을 장려한다"며 "조건을 갖춰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가 원활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정부는 한시적으로 호텔 용적을 완화와 저리 용자 등을 지원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해 7월 의결하기도 했다.

'작은 결혼식' 위해... 해운대 바닷가 개방하기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제외, 관광안내소~조선비치호텔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의 푸른바다, 싱그러운 바람,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올린다. 해수욕장 사용 허가를 가진 해운대구는 그동안 "보전해야 할 공공자산이 시작 이익에 훼손, 침해대선 안 된다"며 다문화·외국인 부부 결혼 등 공공행사 이벤트 등을 제외한 개인적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결혼식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던 부산 해운대구가 '작은 결혼식' 취지에 공감, 해운대 해수욕장을 '작은 결혼식 혼례식장'으로 개방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하기 좋은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의 인기가 높았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부산시에, 부산시는 해운대구에 협조 요청을 했고 3자가 협의, '해운대 해수욕장 혼례식장 개방'을 결정했다. 단,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매년 6월~9월 10일)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공공행사 진행 시기 등에 개방하지 않는다. 사용료는 330㎡당 30만~40만원쯤 될 전망이다. 혼례식장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관광안내소~조선비치호텔 사이 150여m 구간의 백사장이다.



부산 해수욕장 올여름 피서객 4041만9000명 다녀갔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지난 6월 개장 이후 1588만8000명의 피서객이 다녀가 지난해 1372만 명보다 13.6%(216만8000명) 늘어났다. 이 덕분에 주변 식당과 커피숍, 술집, 편의점, 게스트하우스, 찜질방 등은 특수를 누렸다.

무엇보다 올해 3년째를 맞는 '스마트 비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스마트 비치 매출액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15억34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6000만 원보다 50%가량 증가했다. 스마트 비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파라솔 편의시설 운영단체들의 음성적 거래 및 고객행위가 줄어들었다.

올해 개장 100주년을 맞은 송도해수욕장에는 지난해 583만6000명보다 12.6%(84만5000명)가 늘어난 668만 1000명이 찾았다. 전체 피서객 수로는 광안리해수욕장 999

만9000명(전년대비 7.2% 증가)보다 적었다. 하지만 피서객 증가율은 거의 배에 달 할 정도로 급진장세를 보였다.

송도해수욕장 성장의 원동력은 옛 4대 명물 중 가장 먼저 복원된 해상 다이빙대. 지난 7월 7일 준공 이후 주말이면 하루 1000여 명이 이용했다.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정비된 거북섬도 가족단위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고 역대 최대 인파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피서객 증가에 큰 몫을 했다. 광안리해수욕장도 모래찜질방, 갈대파라솔, U-광안리 관광안내소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많은 피서객의 사랑을 받았다.

캠핑촌이 마련된 송정해수욕장에도 480만9000명이 찾았고, 대대포·일광·임랑에도 각각 256만8000명, 30만 8200명, 16만5800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

송도해수욕장 포장 놀잇배 재운항

송도해수욕장에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포장 놀잇배가 재운항된다. 송도관광변영회는 최근 부산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영회는 해양청의 승인을 받는 즉시 거북섬 부근에 계류장(25㎡)을 만들고, 놀잇배 2척(대당 1천300만 원)과 구조선 1척을 건조할 참이다. 포장유선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범 운항에 들어가 10월 말 이후에 정상 운항할 계획이다.

놀잇배는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송도해수욕장 선착장에서 출발해 서구 암남공원 동성까지 운항된다. 왕복 2시간 걸리고 승선비용은 사람당 1만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일몰 이후인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앞바다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항기로 했다.

변영회는 지난 2월부터 송도해수관광주식회사를 설립, 예산 6천여만 원을 자체 조달해 포장유선 복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포장유선길이 총 5m은 강화플라스틱과 유리, 철강, 석재 등 6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진이 장악된 현대식 선박이지만, 외형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1960~1970년대 유행을 불러 일으켰던, 당시 목선이었던 놀잇배를 본떠 '포장 유선'을 만들고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 노를 짚는 속도(노트로) 운항된다.

1980년대부터 포장유선은 구름다리, 해상케이블카, 다이빙대와 함께 송도해수욕장의 4대 명물로 이름이 높았다. 포장유선은 1983년까지 16척이 남았으나 연안정비사업에 착수한 2000년 자취를 감췄다.



사진 : 설악산국립공원 제공

단풍의 고향 같은 곳 설악산! 그곳에 가면...

강원도 설악산은 단풍의 고향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단풍이 남쪽으로 내려와 온 나라를 붉게 물들이는 것. 덕분에 가장 먼저 단풍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설악산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내륙과 가까운 내설악, 바다와 가까운 외설악 등으로 나뉜다.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외설악. 직접 산으로 들어가 설악을 만나는 것은 물론 산 밖에서 설악의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설악산 단풍은 10월 내내 누릴 수 있다. 해발 1500m 이상의 대청·중청·소청봉의 첫 단풍이 9월 28일~10월 5일, 해발 1000m의 한계령, 마등령, 대승령, 공룡 능선의 단풍이 10월 6~10일, 해발 500m의 서북주 능선과 미시령 홀림골의 단풍이 10월 11~15일, 해발 300m의 천불동 수렴동 12선녀담 주전골 용소폭포 정수대 소공원 등의 단풍이 10월 16~25일 즈음 물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아름다운 단풍은 산길을 올라 만나는 정상의 단풍일 것이다. 땀 흘리고 올라 몸은 가뭄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정상 단풍은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느껴 질 것. 햇살 가릴 것 없는 정상부 단풍의 선명한 붉은빛도 이곳까지 올라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이유다.

설악산국립공원(seorak.knps.or.kr)여행은 산 아래 소공원에서 시작된다. 권금성, 울산바위, 비룡폭포 등으로 오르는 케이블카와 등산로가 이곳에서 이어지는 것. 케이블카를 타고 손쉽게 설악산을 오를수 있는 권금성은 권씨와 김씨가 전쟁을 피해 이곳에 성을 만들고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지금은 성곽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소공원에서 울산바위까지는 약 3.8km 거리로 편도 약 2시간 20분이 걸린다. 바위까지 가는 길에 중간중간 볼거리가 자리하고 있다. 신흥사, 내원암, 계조암 등이 그곳. 암자들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30여 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울산바위다. 바위 둘레만 4km가 넘는다. 정상 전망대까지 계단이 설치돼 있어 오르기 쉽다.

병풍처럼 둘러친 설악산의 준봉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속초등대 전망대가 있다. 175개 철계단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속초등대 전망대는 동명향을 비추는 등대다. 등대 1층에는 등대 관련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 음파신호기가 있는 전망대를 만난다. 이곳에 오르면 앞

으로는 동해의 푸른 바다, 뒤로는 설악산으로 감싸인 속초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설악산과 속초의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아래쪽에는 등대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등대에서 동명향 쪽으로 내려오면 파도 소리가 피리 소리처럼 들린다는 영금정이 있다. 예전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어 이곳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피리 부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바위산은 온데간데없고 바다로 향한 넓은 암반만 남아 그 흔적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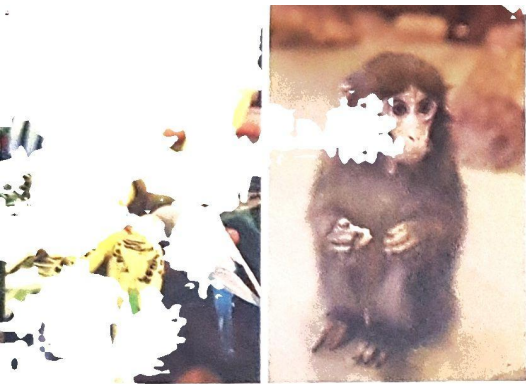
설악산을 출발해 한계령으로 가다보면 중간중간 설악이 보여주는 비경을 만난다. 굳이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아도 길 양안에 자리하고 있는 계곡과 폭포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본격적인 즐거움은 오색약수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오색약수 입구의 상가들을 지나면 옛날에 도적들이 숨어살며 가까워잡전을 만들었던 곳이라 해서 주전골이라 이름 붙인 단풍계곡이 시작된다. 남설악 한계령 중턱에 자리한 용소폭포와 오색약수 사이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 주전골은 온 가족이 함께 하기에 무리 없는 단풍트레킹 코스다. 그리 가파르지 않고 왕복 2~3시간이면 설악의 속살 안으로 들어갔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기 어려운 어른과 함께라면 계곡 입구의 알반 그늘 아래에서 단풍을 만끽해 보자. 흐르는 물줄기에 발을 담근 후 굽게 물든 단풍계곡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전골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골짜기 입구로 들어서면 그리 넓지않은 산책로가 이어진다. 넓은 암반위로 맑디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을 따라 길을 오르면 단풍트레킹의 종점인 용소폭포에 닿는다. 차탄을 온전히 줄 누르기가 있다면 한계령을 넘어 용소폭포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더 편하다.

김복은 orcusan@hanmail.net



도심속 체험, 실내 부산동물원 키주스토리가 탄생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도심속 “힐링 공간”

키주스토리는 동물들의 근접관람과 만지고 보고 느끼는 체험이 가능한 특별한 도심속 체험 실내 동물원입니다.

야외동물원에는 큰 동물(호랑이, 사자, 기린, 코끼리 등)이 있으나 실내동물원에는 없는 대신 작고 다양한 동물이라도 가까이 보고 느끼는 관찰이 가능하고 작은 감동이 있는 동물원입니다. 관람 동선이 길지 않아 가족이나 아이들, 연인, 동물 매니아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쉬는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저거 가까운 곳에 위치해 멀리 가지 않고 편히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물들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와 사랑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약 50여종 160마리 동물들을 만나보세요~



인 / 사 / 말

안녕하십니까? Kidzoostory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키주스토리는 실내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신개념 실내 동물원입니다. 저희 공간에서 관람과 체험을 즐기시다가도 음료나 식사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 동물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절이란 환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실내에서 동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휴대용 게임기나 폭력적인 스크린환경에서 노출된 현대 아이들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는 다양하지만 참된 인성과 정서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은 생각 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서 순화의 필요성과 바쁜 도시의 환경에 예민해진 현대인들에게 자연체험이 가져다 주는 장을 만들고자 키주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더 감동적인 실내동물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 윤두금



■ 이용 방법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관람 및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아래 물품은 반입 금지입니다.

음식물 / 애완동물(안내견 제외) / 자전거 / 유모차 / 인라인 / 키포드 등 소형탑승기구 (유모차는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체험 먹이외 지정된 장소에서 동물에게 음식을 주시면 안됩니다. (동물들이 아파요~)
2. 사진 촬영시 플래시를 켜고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빛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3. 어린이나 유아는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내/외부에 관람객 안전과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유모차 입장이 불가함을 양해바라고 불편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5. 초등학교 미만은 부모님 동반출입을 하셔야 합니다.
6.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요금

구분	성인	어린이	유아 12~24개월	비고
입장권	10,000원	12,000원	5,000원	10:00~21:00
어린이패키지		15,000원		관람 + 식사
성인A패키지	12,000원			관람 + 음료
성인B패키지	17,000원			관람 + 음료 + 식사
단체(50%)	5,000원	6,000원	2,500원	생일 / 단체-유치원/어린이집/기관 20명이상
키주랜드				키주스토리 영수증 제시시 1시간 이용
평일				무료입장
주말		2,000원	2,000원	어린이 유료입장

관람시

1. 관람카드를 항상 패용하셔야 합니다.
2. 직원의 안내를 듣고 관람 및 체험하시면 됩니다.
3. 체험을 원하는 동물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문의
4. 먹이 주는 시간(Feeding time)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때나 주면 동물들이 살피고 버릇도 나빠져요)
5. 동물을 만질 때에는 절대 입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촉하고 작은 동물이라도 물어요)
6.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힐 때에는 강제 퇴장 조치 합니다.
7.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동물들이 깜짝 놀라요

키주랜드 이용 방법

키주랜드는 키주스토리 관람 후 1시간 이용가능 합니다.
입장제한은 8세까지만 입장 가능하고 부모님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평일에는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고 주말/트일/공휴일만 이용요금 2,000원입니다. (어린이요금만 적용)

■ 운영시간

개 장 - AM 10:00
입장마감 - PM 20:00
마 감 - PM 21:00

■ 키주스토리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부산대 지하출역 남측 공용주차장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림속으로 빨려든다! 부산트릭아이미술관 개관

일촉즉발 재미의 연속!
신비스러운 세계,
생생한 고차원적
착시 미술속으로
빠져보자.

트릭아이미술관 소개

트릭아이미술관은 서울 2010년 홍대점 개관을 시작으로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문화명소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제주도에 '놀라운트릭아이'를 개관하며 한국 대표 필수 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제는 그 신비로운 세계가 부산에도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미술관의 엄숙이나 손대지 말 것, 촬영 금지와 같은 규율은 잊어도 됩니다. 전시장에서 발칙한 재치를 발휘해 보세요! 작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세기를 넘나드는 착시미술의 여정이 부산에도 이어집니다.

트릭아이 미술관은 미술사 곳곳에서 발견 되는 트롱프뢰유(눈속임미술, trick eye)를 착시의 과학적 원리와 고차원적 공간기획을 결합하여 유머스럽게 기획한 미술관입니다.

관람객들은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실을 벗어나는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미로속으로 속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곳! 윌리엄 터너의 작품 속 유동치는 파도의 격랑감에 휩싸이고 소림사 무술고수가 나에게 세기의 대결을 청합니다. 아찔아찔 긴장감과 일촉즉발 재미의 연속!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와인 맛도 몰래 음미해보는 것은 물론- 트릭아이만의 비밀스러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 상상 가득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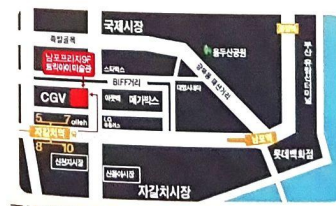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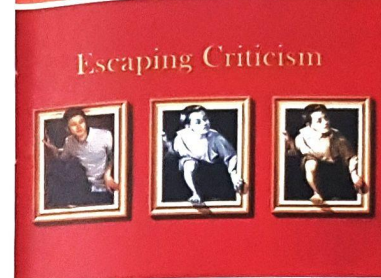
트릭아이란?

트릭아이(trick eye)는 눈속임 그림을 뜻하는 프랑스어 트롱프뢰유 (Trompe-l'oeil)의 영어식 표현으로 'trick of eye'의 줄임말입니다. 2차원 평면 회화를 마치 3차원 입체로 착각하게 하는 그림으로, 단순히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는 이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롱프뢰유는 사실적 묘사, 실제같은 모사로의 자연모사 장르로써, 미술의 가장 기본이며, 그 문헌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발견되어지는 미술장르입니다. 트릭아이미술관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건축 벽화에서부터 미켈란젤로의 천장벽화까지 미술사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트롱프뢰유를 현대적 감각으로 기획한 미술관입니다.

부산 트릭아이미술관 구성

부산트릭아이미술관은 역사관, 어드벤처 테마관, 명화관, 라이프관, 사파리관, '환상여행' 관, '세상에 이런일이' 등 8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되어 서울, 제주 개관으로 다년간 축적된 눈속임 미술의 최신 컨텐츠를 반영하였습니다.



역사관_ 트롱프뢰유(눈속임미술)에 얽힌 일화를 눈속임작품으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프락시우스와 제옥시스의 그림대결' 부터 동 서양 눈속임 미술의 시초와 어원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명화관_ 전세계의 루브르, 모마, 오르세 미술관에 뽐뿌이 흠뻑이 흠뻑이 흠뻑이 한 공간에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명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중세 바로크 상류층 놀이를 즐겨보세요!

라이프관_ 현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단가요? 금고를 열면 돈뭉치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때론 천사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그리던 꿈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사파리관_ 잠힐 듯 말 듯 야생 동물들이 살아나 내 뒤를 쫓습니다. 식은땀나는 체험의 연속- 온몸의 신경이 쪼그라드는 아찔한 공간

'환상여행' 관_ 부산전경이 쏙 들어오는 액자 포토존과 광안 대교와 불꽃놀이로 꾸며진 드라이브 공간에서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고 이색 포토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관_ 공중 부양은 물론 천장에 매달리는 초인되기 등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체험을 다이나믹한 입체 공간 속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류 브랜드 '트릭아이'

트릭아이는 한국기업이 한국의 기술력으로 설립한 한국 미술의 대표 브랜드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류 브랜드로서 큰 획을 긋고 있고 있습니다.

홍대 트릭아이미술관은 아시아권 국가의 왕족들과 하정우, 김수현, 최시원 등 국내외 명사들이 즐겨 찾은 곳으로 2012년 한해에만 2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손꼽힙니다. 이제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 제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 미술의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명소이자 미술계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우뚝서고 있습니다.

트릭아이미술관은 국내 여러 도시와 프랑스 미국 독일 중국 홍콩 태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전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과 시설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상설 공간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브랜드 확장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람 요금 : 성인10,000원 / 청소년 및 어린이: 8,000원 (단체) 성인 8,000원 / 청소년 및 어린이 6,000원 36개월 미만 무료 / 청소년 18세 이하 적용 / 단체 20인 이상 적용
- 운영 시간 : AM10:00 ~ PM9:00 (입장마감PM8:00)
-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trickeye
- 입 금 가 : 문의 요망 (신경미 팀장 051.557.1577 / 010.3566.9419)

• 주소 : 부산시 중구 남포동6가 85 남포프라자 9층 트릭아이전시관 • 문의 : 051577-1577 (담당 : 큐레이터 신경미 / 윤승기)
• 홈페이지 : www.trickeye2.com • 블로그 : blog.naver.com/trickeye • Email : busan@trickeye.com

부산관광 ...

휴머투어리즘 Humatourism 이 필요하지 않은가?



여 호 근 교수

-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 경력/(사)한국관광학회 부회장
(사)한국컨벤션학회 편집위원장
- 현재/(사)한국관광레저학회 편집간사·이사
- e-mail : hkyeo@deu.ac.kr

“ 우리 부산은 ‘인문적인 요소가 잘 결합된 관광’ 이든바 ‘휴머투어리즘(humatourism)’ 과 같은 창조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는 융·복합이라는 단어이다. 이는 융합과 복합의 합성어로서 융합(融合)은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면서 기존의 고유한 성질이 서로 삼투*되어서 새로운 물질이나 결과를 안겨주는 것’ 이고, 복합(複合)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면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융합관련 개념에는 ‘복합, 통합, 통섭’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융합은 굉장히 강한 화학적인 결합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통합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고, 통섭은 함께하는 도약하는(jumping together)**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jumping together’ 의 이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1905년에 제작된 마티스의 ‘원무’에서 찾을 수가 있다. 마티스의 ‘원무’는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5명의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서로가 꾸밈이 없이 손을 잡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원무’를 통하여 개별이 아닌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소통의 느낌도 받을 수가 있다. 소통은 우리를 더욱 값지게 하며, 때로는 더욱 강하게도 한다. 일찍이 창경궁(昌慶宮) 내에 위치하고 있는 홍화문(弘化門)을 통하여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가 있다. 창경궁은 조선 9대 임금인 성종이 1483년(1984년 환공) 창덕궁의 동쪽에 세운 궁궐인데, 창경궁의 중심부분이 동향이기 때문에 정문인 홍화문도 동쪽으로

* 삼투(滲透) : 서로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접촉 때 농도가 낮은 쪽의 용매가 막을 통하여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 확산하는 현상 - 편집자 주

** 김경원(2009, 03.25), 예술·인문학·과학 기술 융·복합 또는 통섭의 개념과 방법, 익온간 융합 문화포럼 발표자료.

“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잠시라도 접어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도 전환하고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광’ 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 ”

세워졌다. 조선시대의 궁궐은 일반 백성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이다. 그런데 홍화문은 임금이 친히 나가 백성들과 대면하였던 곳이다. 영조 임금은 1750년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홍화문으로 나가서 양반과 평민들을 직접 만나서 균역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이는 물리적으로 엄격히 통제가 되었던 시기에 소통(疏通)을 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였던 좋은 한 예이다.

이렇듯 융·복합과 소통은 잘 활용할 경우에 각각의 개별적인 구성요소가 발휘하는 결과보다도 강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게 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인문학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를 활용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고 있다. 이렇듯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인문적인 소양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닐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스마트(smart)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저장·관리하느라고 조용할 틈이 없다. 집, 업무용 공간, 회의장소, 휴식공간, 커피숍 등에서도 개인용 모바일(mobile)을 손에 잡고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누르기에 바쁘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단 일초만이라도 인문학적인 강좌나 인문학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특정한 기회를 접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문학은 인문주의(humanism)에 근거하고 있다.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가치관’ 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값진 학문이 아닐 수가 없다.

그 결과 우리 부산에도 다양한 곳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스토리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도심재생 사업을 비롯하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인문학의 진가(眞價)는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지속되어 우리 부산이 세계인들로부터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을 것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하지만 이제는 융·복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대이다. 휴머니즘을 담은 그릇이 필요한 시대이다. 내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존중함을 갖고 있으면서 보이는 현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휴머니즘은 필요할 것이고, 특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참된 모습과 가치가 있는 요소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휴머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잠시라도 접어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도 전환하고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광’ 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 우리 부산에는 중앙동 40제단 일대와 초량 왜관을 중심으로 한 용두산 공원 일대를 비롯하여 원도심권에는 다양한 역사와 흔적들이 잔재해 있다.

이러한 역사와 흔적들을 콘텐츠로 발굴하고 차별적인 스토리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고려한 접근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산관광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인문학(humanism)과 관광학(tourism)이 각기 단절된 상태에서 콘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할 때보다도 융·복합적으로 통합되면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함께 도와 하기에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부산은 ‘인문적인 요소가 잘 결합된 관광’ 이든바 ‘휴머투어리즘(humatourism)’ 과 같은 창조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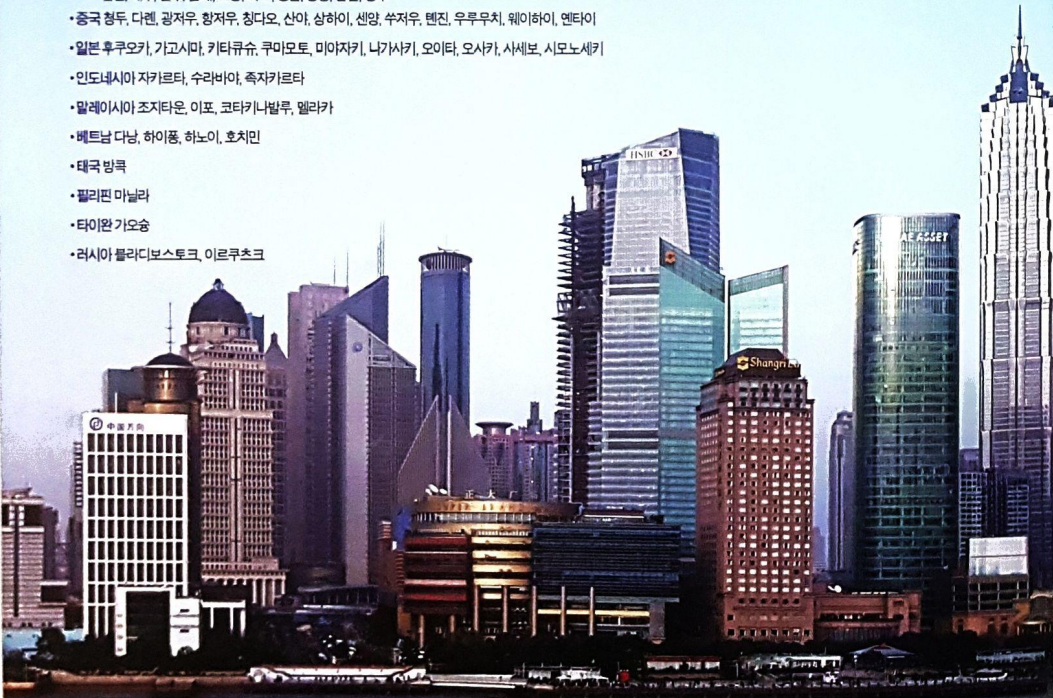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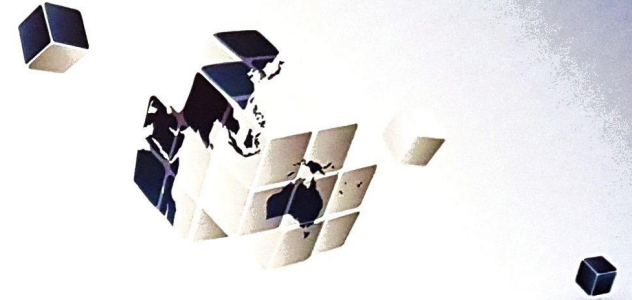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진주, 남해, 포항, 속초, 상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항두, 다렌,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선양, 우저우, 뎬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키타큐슈, 쿠아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My Pride Daedong

미래를 향한 도전과 열정!

다양한 교육기회와 경험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능력을 펼쳐갈 수 있도록
대동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11~2013년 연속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2013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대학 선정

2013 교과부 전문대학 기관평가 교육품질 인증대학 선정

부산지역 전문대학 중 최저 등록금 대학 (대학알리미 공식)

간호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심사기준 통과 4년제 승격 (2015학년도부터 시행)

[수시2차모집] 2013.11.11(월) ~ 11.20(수)

해운대 출발
(09:30)

기장 해동용궁사

광안대교
(경유)

UN기념공원

태종대

광복동 PIFF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

부산역

해운대 도착
(18:00)



시티투어 상품 안내

부산시티투어 당일투어 출발시간 9:30 ~ 18:30

1인 요금 **22,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해운대 출발(9:30) ▶ 해운대 달맞이(경유) ▶ 기장 해동용궁사 ▶ 광안대교(경유) ▶ UN기념공원 ▶ 태종대(자유중식) ▶ 광복동 PIFF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 부산역 경유(17:30) ▶ 해운대 도착(18:30)

태종대 코스 출발시간 11:00 ~ 18:30

1인 요금 **19,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해운대 출발(11:00) ▶ 광안대교(경유) ▶ UN기념공원 ▶ 태종대(자유중식) ▶ 광복동 PIFF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 부산역 경유(17:30) ▶ 해운대 도착(18:30)

용궁사 코스 출발시간 11:00 ~ 18:30

1인 요금 **19,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부산역 출발(11:00) ▶ 해운대 출발(11:30) ▶ 동백섬 누리마루 ▶ 해운대 관광 (자유중식), 아쿠아리움 or 오륙도 유람선 ▶ 기장 해동용궁사 ▶ 광복동 PIFF 광장,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 부산역 경유 (18:00) ▶ 해운대 도착(18:30)

부산 야경 시티투어 출발시간 19:00 ~ 21:30 (최소출발인원 6명)

1인 요금 **19,000원** (하절기, 동절기 출발시간 변경/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해운대 출발(19:00) ▶ 광안대교(경유) ▶ 이기대(부산항 야경관람) ▶ 황령산봉수대 ▶ 광안리 카페거리 ▶ 해운대 도착(21:30)

거가대교 완전정복 출발시간 11:00 ~ 18:00

1인 요금 **30,000원** (차량비, 가이드비 포함)

부산역 출발(11:00) ▶ 태종대 ▶ 자유중식 ▶ 거가대교 경유 ▶ 거가대교 전망대 및 휴게소 ▶ 남포동, 자갈치시장 ▶ 부산역 도착(18:00)

단독맞춤투어

- 45인승 / 28인승 / 25인승 버스
- 12인승 / 15인승 봉고 승합차
- 각종 기업체, 현장학습, 수학여행, 기타 단체활동 전세버스 상담문의

KTX와 함께하는 서울 밤도깨비 여행

대한민국 쇼핑의 메카,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밤도깨비 야간 쇼핑여행!!

요금 **68,000원** 부터~

일정 : 부산역 → 서울역 → 동대문(남대문)으로 이동 →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쇼핑 → 서울역으로 이동 → 부산역

※ 재판매가격 : 왕복열차비,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짐장바비(10,000원), 기타 개인비용 등 ※ 상행, 하행 열차시간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용 열차에 따라 여행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